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2 No.5 Serial No.131 2014.10. 125~143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4.32.5.125

소득계층별 적자가계의 소비 지출 분석

: 2000, 2005, 2010년의 가계를 대상으로

Analysis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Across Income Groups in 2000, 2005, and 2010

이종희(Jonghee Lee)[1], 양세정(Sejeong Yang)[2*]
[1]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2]Departmen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The Household Budget Survey conducted in 2000, 2005, and 2010 by the Bureau of Statistics in South Korea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households used in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s; they were categorized the lowest, low, middle, and high income groups. This study made several findings regarding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Firstly,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between those who have a negative cash flow and those with a positive cash flow. A female household head, a household head age 65 and older, a household head with a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an unemployed household head, and the presence of a child/children in schools were related with the household deficit. Secondly, the households with a positive cash flow had a higher income level compared to the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while the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had a much higher consumption level compared to the households with a positive cash flow. Thirdly, the household deficit to total income ratio of the lowest income group was higher when compared to any other income group. Lastly, the multivariate statistics showed that households including a child/children in schools are more likely to be a household with a negative cash flow. Especially, the expenditures on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were related with the likelihood of a household deficit.

▲주제어(Key Words) : 적자가계(household with a negative cash flow), 가계지출(household expenditure), 가계소득(household income)

Ⅰ. 서 론

가계의 적자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가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출의 감소, 소득의 증가, 자산의 매각, 부채의 차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계 수지 적자를 해결하고자 한다(Bank of Korea, 2013). 따라서 가계의 적자는 소득과 지출간의 관계 뿐 아니라 자산과 부채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595).
* Corresponding Author : Sejeong Yang, Departmen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20, Hongimun 2-gil, Jongno-gu, Seoul 110-743, Korea, Tel : +82-2-2287-5148, E-mail: sjyang@smu.ac.kr

2014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분기 가계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440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 증가율도 물가안정 등으로 2012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월평균 가계지출은 약 349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소비지출은 지난해 동기간보다 4.4%, 비소비지출은 4.8% 증가하였다(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일견 가계 수지는 개선되는 듯 한 양상을 보인다(Bank of Korea, 2013).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한국 가계의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하락으로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출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Seoul Finance, 2014)등 적자가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자가계의 증가는 한국의 다양한 소득 계층에서 관측되고 있다. 2011년도 소득 하위 20%의 가구 중 56.6%가 적자 가구이었으며(Bureau of Statistics, 2012), 저소득층의 적자가계의 경우 소비지출을 줄이지 않고, 부채를 통해서 소비를 함으로써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J. Park, 2007). 또한 금융위기 이후 소득 1~2분위 저소득 계층의 경우 부채의 감소폭보다 자산의 감소폭이 커서 가계 순자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Financial Magazine, 2012). 해외의 연구(e.g. M. Brewer & A. Goodman, 2006 & S. Meyer, 2003)도 적자가계의 현상은 저소득가계에서 만연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관측되었는데, 1992년에는 소득 상위 20~80%인 2인 이상 도시 중산층 가계 중 약 13%가 적자 가계였으며, 20년만인 2012년에는 19%로 적자가계가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Chosun Newspaper, 2013). D. Park(2009)은 한국의 신화이트칼라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들은 주택대출 이자와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고소득층은 높아진 생활수준과 체면 유지비를 위해 빚을 지는 집단이라고 설명 하였다.

Ando and Modigliani (A. Ando & F. Modigliani, 1963)등에 의해 제창된 소비이론인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인간은 일정기간 동안 소득을 얻게 되고, 일생 동안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늘 소득과 지출이 일치할 수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평생 벌게 될 기대소득규모에 근거해서 일생 동안 적정수준의 소비지출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이론에 의하면 전 생애는 소득을 남겨두는 흑자기간과 남겨둔 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적자기간이 공존하기 때문에 가계의 부채는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 적자가 비합리적인 경제행위로 인한 결과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성적인 가계적자나 과도한 소비지출 때문에 발생하는 가계적자나 과다한 부채의 차용으로 이어지는 가계적자는 가계경제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S. Lee & Y. Sung, 2007). 또한 가계대출 구조의 악화와 이에 따른 부실률 악화로 가계의 소비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투자와 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 축소와 부채 상환 능력에 악영향을 끼쳐 실물경제와 금융을 영향을 미치는 등의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시경제 차원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Hankyoreh Newspaper,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적자가계의 경제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적자가계는 소득부족에 따른 생계형의 경향을 띄었던 반면, 최근의 적자가계는 점차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다양화되어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가계 재무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나 최근의 적자가계의 특성변화를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전술한바와 같이 최근의 적자가계는 다양한 소득계층에서 발견되어, 저소득 가계 뿐만 아니라 고소득계층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적자가계의 수지의 규모, 지출 항목,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적자가계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계의 수지 규모, 두드러진 지출항목,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이를 흑자가계의 결과와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적자가계의 경제적 특성, 원인규명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적자가계의 변화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재무관리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집단은 명확히 함으로써 적자가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가계의 적자와 관련한 이론은 기간 간 효용극대화 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소비자는 일생동안 소비지출을 해야 하는 반면, 소득은 일정기간동안에만 가능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적정 소비수준을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함으로써 일생동안의 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를 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비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저축을 이용하거나 혹은 차용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한다.

따라서 기간 간 효용극대화 이론에 의하면 현재시점에서의 소비지출규모에 대한 가계의 의사결정은 가계소득과 시장이자율 및 소비자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F. Magrabi, Y. Chung, S. Cha, & S. Yang, 1991, pp. 28-31).

Consit = f (Yi, ri, Tit)

여기서 Consit는 t해에 가계 i가 보유하고자 하는 소비지출액이며 Yi와 Tit는 각각 다 기간 동안의 가계소득과 현재와 미래간의 시간선호를, 그리고 rit는 가계 i가 이용하고 있는 저축/부채의 시장이자율을 의미한다. 이때 소비 지출액 Consit는 현재의 가계소득수준 Yit과의 차이에 따라 적자 또는 흑자로 나타난 부분은 부채를 얻거나 또는 저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채(Dit)에 대한 가계의 의사결정 역시 가계소득과 시장이자율 및 소비자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Dit = g (Yi, ri, Tit)

이는 생애소득과 소비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가계의 소비행동, 저축행동, 차입행동을 설명해주며 생애주기가설의 토대가 되었다. 생애주기모델의 기본 가정은 개별가계나 개인이 소비지출의 한계효용을 일생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가계나 개인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의 소비의 한계효용이 다른 기간 동안의 소비의 한계효용과 같도록 소비를 조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지출에 의해서 얻게 되는 생애동안의 총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전 생애에 걸친 소비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가계의 저축행동과 차입행동의 필요성은 합리적 기대 모형인 생애주기 모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계는 현재의 제한된 소득에 따라 저축결정이나 차입결정을 하고 현재와 미래의 기간 간에 가계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게 된다.

부채와 저축에 관한 경제이론들은 축적된 자산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론에서 언급되는 부채는 엄밀히 말해서 신규부채 또는 적자라는 용어가 타당하다. 현재의 가계소득과 여타변수간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소비지출과 가계소득의 차이가 현재시점에서의 부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만약 축적된 자산에 의해서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면 이때 신규부채는 발생하지 않고, 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적자규모(Deficitit) 역시 위에서 언급한 부채수요와 동일한 논리로 설명되어진다.

생애소득에 근거하여 다기간간 소비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한 적자는 가계의 장기적 재무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며, 당연히 가계의 신용문제 또한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규가계 부채 외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가계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애소득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시장이자율 또한 소비자가 조절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며, 수명의 변동성이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는 경제상황의 변화나 경제정책적 이유로 인해 부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동성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은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비 지출 부분을 가정하였다. 마찬가지로 가계소득이 기초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적은 경우 그 가계는 적자일 수밖에 없으며, 해당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축적된 자산이 없다면 신규부채를 창출하여야만 한다. 기초생계비 지출을 위한 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아닌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기초생계비 또는 필수재라는 것이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상 필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가계들조차 필연적 적자인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적자가계구조인지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Ⅲ. 선행연구의 고찰

한국의 적자가계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다수의 연구들은 가계의 부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며, 적자가계의 원인과 재무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의 연구들은 과소비 가계, 신규부채수요 가계 등 적자가계의 유사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M. Bae, S. Hanna, and S. Lindamood(1993)는 1990년도 미국의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하여 미국가계의 과소비 패턴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재무비율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과소비율이라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가계의 40%가량이 과소비가계였으며, 소득수준이 과소비율에 가장 주요변수였다. 다항로짓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소비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 Park, S. Lee, and M. Bae(1996)는 1994년 도시가계연보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과소비 가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과소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소비 지출액을 소득으로 나눈 다음 이 소득 대비 가계지출비율이 1 보다 큰 경우를 과소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과소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의 연령, 가족원의 수,

수입원 수, 교육수준, 자가 소유 여부 등이 과소비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과 과소비율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으나, 소득수준이 높을 때에도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S. Lee(2005)는 2002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소비・부채가계의 분포, 자산변동, 소득 및 지출구조를 분석하고, 과소비・부채가계와 관련성이 높은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소비의 89%는 자산으로, 11%는 부채로 충당되었고, 과소비부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출은 대학교납입금, 자동차구입, 교육비송금임을 밝혀낸 바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소비 생활 전반에 걸친 지출 배분의 조정과 생활수준의 저하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S. Lee and Y. Sung(2007)는 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계를 적자가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가계를 분석대상으로 정하여 부채를 통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지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자부채가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들은 1년 동안의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동시에 주택관련 부채, 월부 및 외상, 일반 부채가 유입된 가계를 적자부채가계라고 정의하였다.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지출 비목의 지출비중을 인자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생계형, 과소비형, 자동차 구입형, 교육형, 내구재구입형, 기타, 부채형을 도출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생계형 가계는 소득수준과 가계지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음식물비, 수도광열비, 주거비, 의약품 비 등 필수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가계로 나타났다.

Y. Sung(2006)은 가계적자의 탈출과 진입요인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2002년과 2003년 두 기간간의 가계적자 여부에 따라 가계를 분류하고, 가계적자진입과 적자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계적자여부에 따라 분류한 가계유형별 재무상태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자가계로의 진입은 소득감소와 소비지출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며, 금융자산의 감소, 가계부채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자가계탈출은 가계소득의 증가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적자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계지출과 부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 Yang(2010)은 적자가계의 사회인구적 특성, 소비지출, 가계소득, 자산변동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가계소득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가계소득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비근로자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분석 결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적자가계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이하보다 30~50대 연령대의 경우, 노무직 종사자보다 공무원, 사무직 가구가 적자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군집분석의 결과 소비지출구성비에 근거하여 적자가계를 보건의료비형, 생계형, 교육비형, 송금형, 과소비형으로 나누었으며, 적자가계의 절반이상은 과소비형 적자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J. Won(2003)은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적자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은 한계계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등 네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별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자가구와 흑자 가구 간 소득의 격차보다 소비의 격차가 훨씬 더 컸으며, 소비구성에 있어서는 적자가구가 거의 모든 소비항목에서 비 적자 가구 보다 절대액 기준으로 소비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은행의 동향/연구보고서에(S. Jeong & S. Hwang, 2013)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계수지 적자가구 비율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경우 적자가구 중 80% 정도가 소득 1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적자가구의 소비행태를 살펴본 결과,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적자는 자동차 구입 등 교통지출과 관련이 높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소득층 가구, 가구주 저연령층 가구에서 뚜렷하였다. 한편 저소득계층은 교육, 보건, 오락・문화, 기타상품・서비스 등이 가계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Ⅳ.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한국 가계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적자가계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적자가계의 가계수지, 가계지출,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며, 이를 흑자가계와 비교한다.

<연구문제 1> 적자가계의 가계수지는 소득계층별로 상

이한가?

<연구문제 2> 적자가계의 가계지출 항목 및 비중은 소득계층별로 상이한가?

<연구문제 3> 가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2000년, 2005년,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전국의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소비 생활의 실태, 생활수준의 추이, 지역적 차이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경제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인 가계의 경제행위에 관한 한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이다(H. Choi, 2000).

이 조사는 가구의 개별적인 수지 실태를 금액의 형태로 포착하며, 소비분석, 시장조사, 생계비지수 작성 시에도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이 자료는 1963년 이래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하고 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품목별로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며,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다. 1963년에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1975년부터 전 비목에 대해 가계부기장방식이 채택되었다. 소비지출비목도 1981년까지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등 5대 비목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나 1982년부터 가구, 보건, 교육, 교통 등을 추가하여 9대 비목으로 확대하였다. 1995년부터는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를 분리하여 10대 비목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0년 6,413가구, 2005년 11,367가구, 2010년 10,667가구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2000년과 2005년 자료는 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10년의 자료는 1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의 원자료에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로 한정하여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이용된 가구는 2000년 6,413가구, 2005년 11,367가구, 2010년 9,1527가구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 분석 방법

적자가계와 흑자가계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계소득, 가계지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χ^2 Test, Anova와 같은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적자가계의 확률을 설명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자가계여부는 두 집단으로 나눠지므로, 개별 관측치들이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통계 알고리즘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연도변화에 따른 적자가계 유형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0년을 준거집단으로, 2000년과 2005년을 더미변수로 연구 모델에 포함한다.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변수들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용된 방법과 정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적자가계는 가계의 지출이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로 정의한다. 가계의 소득과 가계의 지출이 동일하거나 가계의 소득이 가계의 지출을 초과하는 가계를 흑자가계라고 정의하였다. J. Won(2003)은 경제위기 이후의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를 연구하였는데, 적자가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이용하였다. 가계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자산감소와 부채증가로 구성된 기타수입은 제외하였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되며, 기타지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를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연구모형에 포함될 독립변수로는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가계 소득, 가계 지출을 포함하였다. 모델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과소비 가계, 신규부채수요 가계 등 적자 가계의 유사개념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M. Bae et al.(1993)은 과소비 가계가 될 확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에는 가계소득,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 자가소유, 가구주의 직업, 소득원의 수, 가구원수, 가구주의 직업이 포함하였으며, 가계소득,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 자가소유, 가구주의 직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 Park et al.(1996)는 과소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가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자가를 소유할수록 가계의 과소비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와 저축액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Y. Sung(2008)은 가계적자 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횡단분석모형을 이용하였다. 가계특성의 변수로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성별, 주거지역, 가구원수, 사교육여부, 직업, 가계소득분위 금융자산, 부채잔액, 자가 소유여부을 포함하였는데, 횡단분석모형에서는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주 직업, 가계소득이 적자가계 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자가계가 될 확률을 분석하고자 가계소득, 가계지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1) 가계소득

가계의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경상소득은 일정한 금액이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포함하며, 비경상소득은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전혀 예상할 수 없거나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으로서 각종 상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뉘어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2000년, 2005년, 2010년의 가계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기 위하여 명목소득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소득을 이용하였다. 2013년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Bureau of Statistics, 2013)를 이용하여, 2000년과 2005년의 액수를 2010년도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2) 가계지출

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한 지출을 포함한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사회보장,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을 포함한다.

(3) 인구사회학적, 경제학적 변수

연구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가족구성,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수준 등이다. 이 중 성별, 취업여부는 이분변수이므로, 각각 한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남성', '비취업'을 각각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나누어 연구에 포함하였다. 명목척도인 가족구성의 경우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배우자가 있으며, 동거를 하고 있는 가계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두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서열척도로, '30세 미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30세 이상 45세미만', '4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의 세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대학 졸업' 과 '대학원 졸업' 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가계의 소득계층 분류하기 위하여 J. Won(2003)의 연구에서 가계를 총소득에 따라 4개의 계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 중위소득 50~100% 미만인 계층, 중위소득 100~150% 미만인 계층, 끝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인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소득계층을 한계계층, 서민계층, 중산계층, 고소득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로 구분하여 집단 간 가계수지의 규모, 적자비율,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항목별, 지출항목별로 구성비의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계계층에 5,092, 서민계층에 9,130, 중산계층에 7,523가계, 고소득계층에 6,702가계가 포함되었다.

Ⅴ.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분석 결과

1)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일반적 특성

2000년, 2005년, 2010년의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비율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2000년의 적자가계의 비율은 약 27%이었으며, 2005년과 2010년의 적자가계의 비율은 약 28%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의 비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93).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명목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

Table 1.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in 2000, 2005, and 2010 (%)

Household categories	2000	2005	2010
HH w/ a negative cash flow	26.84	28.39	27.12
HH w/ a positive cash flow	73.16	71.61	72.88

Table 2. Selected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in 2000, 2005, and 2010 (%)

Variables	Categories	H'H w/ a negative cash flow	H'H w/ a positive cash flow
Marital status	Cohabitation couple	79.54	82.89
	Single	14.59	11.94
	Non-cohabitation couple	5.87	5.17
prob.		<.0001	<.0001
Age	~29	5.11	5.60
	30~44	40.23	45.55
	45~64	40.51	40.78
	65+	14.15	8.06
prob.		<.0001	<.0001
Gender of H'H head	Male	76.46	82.42
	Female	23.54	17.58
prob.		<.0001	<.0001
Education attainment	Less than college	70.40	63.23
	College	26.30	32.52
	Graduate school& above	3.30	0.04
prob.		<.0001	<.0001
Employment status	Employed	72.25	89.43
	Unemployed	27.75	10.57
prob.		<.0001	<.0001
Job status	Salary earner	3.28	3.34
	Temporary salary earner	8.36	12.25
	Day laborer	8.43	13.10
	Employer	6.45	7.66
	Self employed worker	12.13	11.68
	Unpaid household laborer	0.34	0.31
	Others	12.01	13.90
prob.		<.0001	<.0001
Family composition	Having employed children	8.67	9.15
	No employed children	91.33	90.85
prob.		<.0001	<.0001
	Having children in schools	7.79	6.52
	No children in schools	92.21	93.48
prob.		<.0001	<.0001
Marital status	Cohabitation couple	79.54	82.89
	Single	5.87	5.17
	Non-cohabitation couple	14.59	11.94
prob.		<.0001	<.0001

Table 2. 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H'H w/ a negative cash flow	H'H w/ a positive cash flow
Age	~29	5.11	5.60
	30~44	40.23	45.55
	45~64	40.51	40.78
	65+	14.15	8.06
prob.		<.0001	<.0001
Gender	Male	76.46	82.42
	Female	23.54	17.58
prob.		<.0001	<.0001
Education attainment	Less than college	70.40	63.23
	College	26.30	32.52
	Graduate school& above	3.30	4.24
prob.		<.0001	<.0001
Employment status	Employed	72.25	89.43
	Unemployed	27.75	10.57
prob.		<.0001	<.0001
Job status	Salary earner	6.44	5.37
	Temporary salary earner	16.39	19.69
	Day laborer	16.53	21.04
	Employer	12.65	12.30
	Self employed worker	23.79	18.76
	Unpaid household laborer	0.66	0.49
	Others	23.55	22.34
prob.		<.0001	<.0001
Family composition	Having employed children	8.67	9.25
	No employed children	91.33	90.75
prob.		<.0001	<.0001
	Having children in schools	7.79	6.52
	No children in schools	92.21	93.48
prob.		<.0001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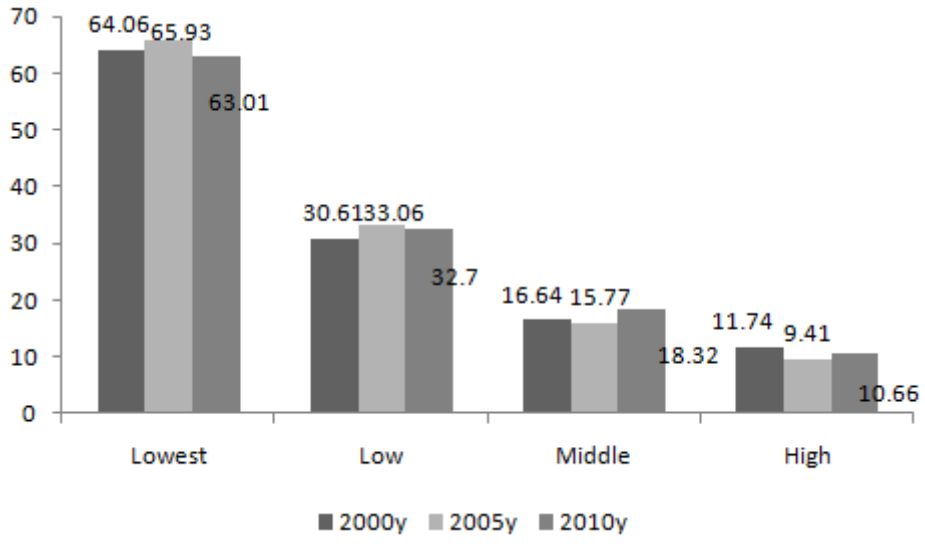

Figure 1. The Ratio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

여부에 관한 검정을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을 제시하였다. 적자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이상 44세 이하인 경우는 약 44 %이었으며, 흑자가계의 경우는 약 46%이었다. 적자가계의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약 76%이었으나, 흑자가계의 경우 약 82%이었다.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적자가계 비율이 상이하였으며, 학력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적자가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는 약 70%이었으나, 흑자가계의 경우는 약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취업여부도 적자가계의 비율과 관련이 되었다. 적자가계의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인 경우는 약 28%이었으나, 흑자가계의 경우는 약 11%에 지나지 않았다. 학업중인 자녀유무는 적자가계와 흑자가계가 상이하였으며, 적자가계의 경우는 약 8%가 학업중인 자녀가 있었으며, 흑자가계는 약 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을 한계계층, 서민계층, 중산계층, 고소득계층의 네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적자가계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적자가계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한계계층, 서민계층, 중산계층, 고소득계층 순으로 갈 수록 적자가계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한계계층의 경우 2000년, 2005년, 2010년 약 64%, 66%, 63%가 적자가계이었으나, 중위소득 150%이상인 고소득계층은 동기간 약 12%, 9%, 11%가 적자가계이었다.

2) 적자가계의 가계 수지

(1)가계소득과 가계지출

2000년, 2005년, 2010년의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수지규모와 격차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흑자가계의 가계소득이 적자가계의 가계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적자가계의 가계수입은 흑자가계의 가계수입의 63%이었으며, 2005년의 적자가계의 총소득은 흑자가계의 56%, 2010년의 비율은 55%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가계소득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의 경우 흑자가계의 경상소득이 적자가계의 경상소득보다 높았으며, 비경상소득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계수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흑자가계가 적자가계보다 높았으나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0년도 적자가계의 경상소득은 흑자가계의 경상소득의 약 64%이었으며, 2005년의 경우 55%, 2010년의 경우 58%로 나타나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경상소득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적자가계와 흑자자계의 가계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연도별 수치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경상소득이었으며, 경상소득 중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적자가계의 경우 사업소득의 비중이 흑자가계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흑자가계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적자가계보다 높은 편이었다. <Table 4>는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항목별 지출액과 비중의 구조를 보여준다. 2000년, 2005년,

Table 3. Incomes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currency: won)

	2000				2005				2010			
	N[a)]	Ratio[b)]	P[a)]	Ratio[b)]	N[a)]	Ratio[b)]	P[a)]	Ratio[b)]	N[a)]	Ratio[b)]	P[a)]	Ratio[b)]
Income[c)]	2,082,958		3,301,356***		2,124,975		3,797,455***		2,279,341		3,904,204***	
Ordinary[c)]	1,966,715		3,083,330***		2,013,724		3,639,477***		2,178,295		3,746,517***	
Labor[c)]	981,166	0.47	2,003,575***	0.61	1,030,566	0.49	2,484,076***	0.65	1,293,027	0.50	2,563,801***	0.64
Business[c)]	696,132	0.33	810,779***	0.25	685,932	0.32	842,476***	0.22	552,778	0.23	813,704***	0.22
Property[c)]	42,964	0.02	38,807	0.01	17,835	0.01	18,237	0.01	12,298	0.01	14,819	0.01
Transfer[c)]	246,453	0.12	230,169	0.07	279,391	0.13	294,687	0.08	320,190	0.26	354,192**	0.14
Non-ordinary[c)]	116,243	0.06	218,026***	0.07	111,251	0.05	157,979***	0.04	101,046	0.06	157,687***	0.03

[a)] N=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P= households with a positive cash flow
[b)] represents the ratio of different sources of income to total income
[c)] mean values
**p < .01, ***p < .001

Table 4. Expenditures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currency : won)

	2000				2005				2010			
	N	R[a)]	P	R	N	R	P	R	N	R	P	R
Consumption	2,664,164		2,416,029***		2,811,958		2,696,491***		2,918,365		2,755,940***	
Expenditure	2,181,895	0.82	1,894,550***	0.78	2,288,713	0.81	2,093,354***	0.78	2,352,136	0.81	2,097,531***	0.76
Food	336,202	0.13	328,804*	0.14	319,346	0.11	313,640	0.12	310,494	0.11	302,247	0.11
Liquor	28,295	0.01	29,328	0.01	34,272	0.01	32,860	0.01	24,699	0.01	27,208***	0.01
Clothing	139,801	0.05	136,510	0.06	134,867	0.05	142,075*	0.05	138,396	0.05	141,565**	0.05
Housing	244,253	0.09	190,892***	0.08	242,347	0.09	208,483***	0.08	259,269	0.09	223,492***	0.08
Utility	107,697	0.04	65,360***	0.03	105,261	0.04	73,149***	0.03	92,270	0.03	78,363***	0.03
Health	133,406	0.05	100,723***	0.04	157,814	0.06	116,039***	0.04	176,060	0.06	136,363**	0.05
Transportation	335,585	0.13	212,903***	0.09	322,018	0.11	233,388***	0.09	360,747	0.12	225,972***	0.08
Telecommunication	104,124	0.04	102,007	0.04	142,980	0.05	151,511***	0.06	127,047	0.04	134,455***	0.05
Entertainment	141,137	0.05	117,636***	0.05	124,086	0.04	110,113***	0.04	125,207	0.04	110,393***	0.04
Education	232,801	0.09	194,272***	0.08	274,545	0.10	212,901***	0.08	313,603	0.11	237,113***	0.09
Eat-out	224,449	0.08	253,391***	0.10	249,459	0.09	304,307***	0.11	241,092	0.08	279,812***	0.10
Others	154,140	0.06	162,717	0.07	184,623	0.07	194,883	0.07	183,247	0.06	200,543***	0.07
Non-expenditure	482,269	0.18	521,479**	0.22	523,245	0.19	603,137***	0.22	566,228	0.19	658,408***	0.24
Constant tax	54,972	0.02	88,630***	0.04	44,983	0.02	99,648***	0.04	60,735	0.02	107,815***	0.04
Non-constant tax	27,472	0.01	12,674***	0.01	31,345	0.01	9,755***	0.00	21,860	0.01	6,647***	0.00
Pension	35,983	0.01	64,734***	0.03	52,549	0.02	93,284***	0.03	59,809	0.02	100,750***	0.04
Social security	38,832	0.01	45,555***	0.02	53,573	0.02	69,717***	0.03	67,163	0.02	89,893***	0.03
Interests	71,213	0.03	51,819***	0.02	59,746	0.02	47,120***	0.02	64,380	0.02	59,579	0.02
Interfamily transfer	170,389	0.06	171,866	0.07	192,820	0.07	191,545	0.07	207,419	0.07	202,525	0.07
Charity	83,405	0.03	86,198	0.04	88,226	0.03	92,064	0.03	84,861	0.03	91,195**	0.03

[a)] represents the ratio of each of expenditures to total consumption
*p < .05, **p < .01, ***p < .001

2010년 모두 적자가계의 가계지출이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한편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은 모두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2000년의 경우 적자가계의 가계지출은 흑자가계보다 10%보다 높았으며, 2005년의 경우 4%, 2010년의 경우 11%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지출이 가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적자가계의 경우 2000년, 2005년, 2010년의 가계지출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2%, 81%, 81%로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소비지출 중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통신', '오락문화', '교육'에 관련된 지출금액은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 지출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 항목은 '교통', '보건', '교육'이었다.

비소비지출액은 흑자가계가 적자가계보다 높았으며,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관련 지출'이 흑자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단 비경상조세 등은 적자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적자가계가 흑자가계의 2배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타소득과 기타지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상소득과 경상소득을 포함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가계지출을 이용하였으며, 기타소득과 기타지출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가계의 기타소득은 자산변동으로 인한 소득, 부채증가로 인한 소득, 자산이전으로 인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이 가계의 수입에 포함이 된다면 적자가계의 비중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변동으로 인한 소득(저축 및 보험을 통한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유가증권 매각, 보증금 회수, 부동산 매각,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과 부채 증가로 인한 소득(부동산과 관련하여 빌린 돈과 기타 빌린 돈을 포함)을 통하여 증가한 소득 등이 적자자계가 흑자가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적자가계가 부채의 증가로 인한 소득은 흑자가계의 2.2배에 달하였으며, 2005년과 2010년에는 각각 2.6배와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에서는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과 자산이전을 포함하는 가계의 기타지출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타지출에서는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과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적자가계는 흑자가계와 비교하여 저축 및 적금, 펀드, 유가증권의 구입과 같은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상환과 같은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의 경우 2005년과 2010년에는 흑자가계가 적자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적자가계와의 소득계층별 가계 수지

소득계층별로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수지 규모와 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가계소득과 가계지출값을 제시하였다(<Table 5~7> 참조).

<Table 5>는 2000년도의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이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흑자가계의 경상소득,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가계소득은 적자가계보다 높았으며, 적자가계의 가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계지출은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단 비경상소득의 경우 한계계층과 고소득계층의 경우 적자/흑자가계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과 <Table 7>은 2005년도와 2010년도의 적자/흑자가계간 수지 규모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2000년도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흑자가계의 가계소득과 경상소득은 적자가계보다 높았으며, 적자가계의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은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단 한계계층과 고소득계층은 비경상소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계층별로 수지규모의 격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계계층의 경우 흑자가계가 적자가계와 비교하여 2000년에는 약 21만원, 2005년에는 약 27만원, 2010년에는 약 22만원 가량 가계소득이 높았다. 반면에 가계지출은 2000년 약 49만원, 2005년 약 59만원, 2010년 약 51만원 가량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흑자가계가 적자가계와 비교하여 2000년에는 약 67만원, 2005년에는 약 47만원, 2010년에는 약 55만원 가량 가계소득이 높았다. 반면 가계지출은 2000년 약 207만원, 2005년 약 295만원, 2010년 약 263만원 가량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서민계층과 중산계층의 경우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적자가계가 되는 원인이 소득의 부족보다는 지출의 과다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자가계의 지출의 과다는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과 가계소득의 차이인 가계의 적자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한계계층인 적자가계의 적자액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33,550원, 645,552원, 580,809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28). 또한 서민층 적자가계의 적자액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460,415원, 582,112원, 528,103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1). 그러나 중산계층과 고소득계층은 연도별로 적자액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Incomes and Expenditures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in 2000 (₩)

	Lowest[a)]		Low[a)]		Middle[a)]		High[a)]	
	N	P	N	P	N	P	N	P
Income	800,694	1,011,052***	1,901,769	2,020,907***	3,153,876	3,212,448*	5,038,486	5,707,315***
Ordinary	756,737	970,371***	1,815,354	1,955,685***	2,982,067	3,103,545***	4,658,108	5,102,157***
Non-ordinary	43,957	40,681	86,415	65,222***	171,809	108,903***	380,378	605,158
Consumption	1,334,244	844,800***	2,362,184	1,610,515***	3,932,429	2,427,320***	5,948,558	3,877,016***
Expenditure	1,123,595	732,996***	1,949,272	1,336,728***	3,220,001	1,936,655***	4,706,659	2,881,151***
Non-expenditure	210,649	111,804***	412,912	273,787***	712,428	490,665***	1,241,899	995,865***

[a)] Lowest= the lowest income group; Low=the second lowest income group; Middle=the middle income group; High=the highest income group
*p < .05, ***p < .001

Table 6. Incomes and Expenditures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in 2005 (₩)

	Lowest[a)]		Low[a)]		Middle[a)]		High[a)]	
	N	P	N	P	N	P	N	P
Income	811,628	1,083,257***	2,142,395	2,266,468***	3,550,351	3,611,343**	5,854,474	6,326,736**
Ordinary	771,134	1,043,047***	2,053,428	2,196,854***	3,404,673	3,516,746***	5,345,941	5,977,738***
Non-ordinary	40,494	40,210	88,967	69,614***	145,678	94,597***	508,533	348,998
Consumption	1,457,181	868,391***	2,724,507	1,769,455***	4,308,913	2,666,309***	7,135,327	4,190,391***
Expenditure	1,223,859	762,654***	2,246,594	1,466,955***	3,435,870	2,125,363***	5,609,747	3,073,078***
Non-expenditure	233,322	105,737***	477,913	302,500***	873,043	5409,46***	1,525,580	1,117,313***

[a)] Lowest= the lowest income group; Low=the second lowest income group; Middle=the middle income group; High=the highest income group
**p < .01, ***p < .001

Table 7. Incomes and Expenditures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in 2010 (currency : won)

	Lowest[a)]		Low[a)]		Middle[a)]		High[a)]	
	N	P	N	P	N	P	N	P
Income	802,101	1,052,098***	2,110,897	2,205,287***	3,412,033	3,515,838***	5,630,335	6,179,447***
Ordinary	738,746	987,509***	2,024,558	2,132,855***	3,289,448	3,410,468***	5,399,300	5,889,174***
Non-ordinary	63,355	64,589	86,339	72,431***	122,585	105,369***	231,035	290,272
Consumption	1,382,971	830,063***	2,369,001	1,686,680*	4,063,007	2,593,620*	6,777,170	4,143,165***
Expenditure	1,179,968	707,742***	2,181,249	1,381,071***	3,244,822	2,038,259***	5,135,837	3,004,685***
Non-expenditure	203,003	122,321***	457,751	305,608***	818,184	555,361***	1,641,333	1,138,481***

[a)] Lowest= the lowest income group; Low=the second lowest income group; Middle=the middle income group; High=the highest income group
*p < .0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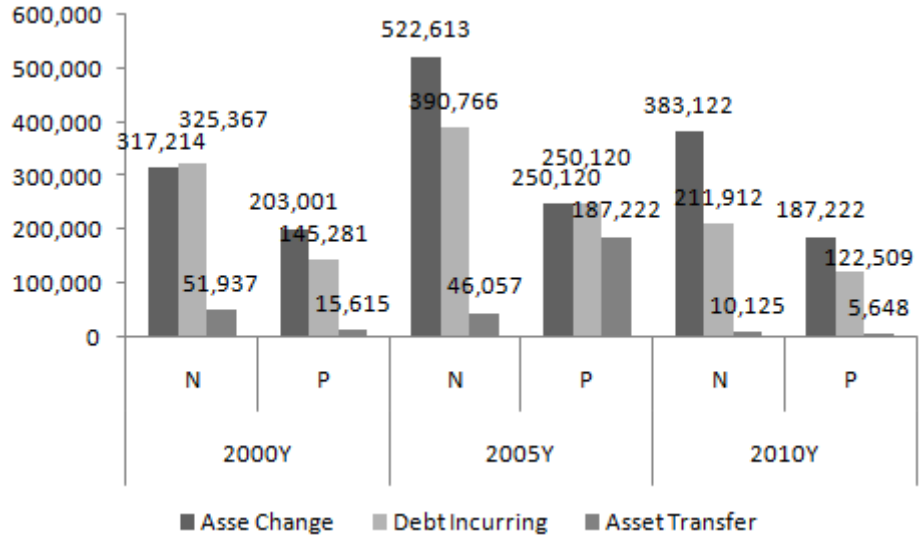

Figure 2. Other Incomes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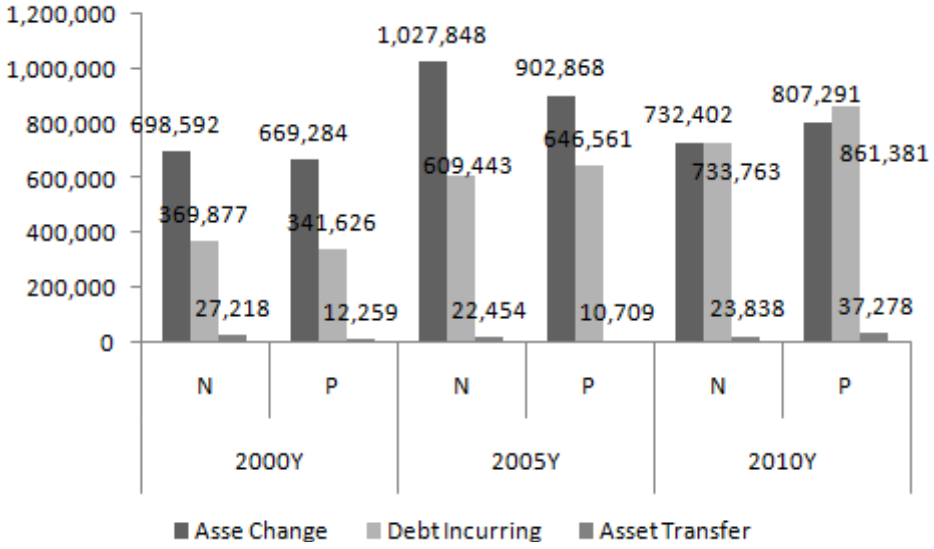

Figure 3. Other Expenditures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

4) 적자가계의 소득계층별 가계지출 항목과 비중

2000년, 2005년, 2010년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가계지출의 항목과 비중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가계지출 항목 중 비중이 높은 일부의 지출 항목들을 가계지출 대비 해당 지출 항목으로 계산하여 <Table 8~10>에 제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계지출을 살펴보면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도 적자가계의 경우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가계지출액이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가계지출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지출 항목 중 '교통'과 '교육'의 경우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 한계계층의 경우 '교통'관련 지출액은 적자/흑자가계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소득수준이 상승할수 록 그 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음식/숙박'의 경에는 흑자가계가 적자가계보다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연구 연도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적자가계와 흑자가계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소득계층별로 가계지출의 항목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계계층의 적자가계를 고소득계층의 적자가계와 비교해보면 한계계층의 적자가계의 경우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보건'과 '주거' 관련 지출의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았으나, '교통', '교육', '비소비지출'과

Table 8. Selected Expenditure Categories of Four Income Groups in 2000

	Lowest		Low		Middle		High	
	N	P	N	P	N	P	N	P
Food/beverage	0.18	0.23***	0.14	0.17***	0.11	0.14***	0.09	0.11**
Clothing/shoes	0.05	0.04	0.05	0.05	0.05	0.06	0.05	0.06
Housing/water/electricity	0.14	0.15*	0.09	0.10**	0.08	0.08	0.07	0.06***
Health	0.07	0.06	0.05	0.05	0.04	0.04	0.04	0.04
Transportation	0.08	0.07	0.11	0.08***	0.14	0.09***	0.17	0.09***
Education	0.06	0.04***	0.09	0.07***	0.10	0.08***	0.09	0.08
Eat-out	0.08	0.10***	0.09	0.12***	0.08	0.11***	0.08	0.10*
Non-expenditure	0.16	0.13	0.17	0.17	0.18	0.20*	0.21	0.26*

*p < .05, **p < .01, ***p < .001

Table 9. Selected Expenditure Categories of Four Income Groups in 2005

	Lowest		Low		Middle		High	
	N	P	N	P	N	P	N	P
Food/beverage	0.17	0.22***	0.12	0.15***	0.09	0.12***	0.07	0.09***
Clothing/shoes	0.04	0.04	0.05	0.05	0.05	0.05	0.05	0.06
Housing/water/electricity	0.12	0.15**	0.09	0.10***	0.07	0.08**	0.06	0.06
Health	0.07	0.08	0.06	0.05***	0.04	0.04	0.05	0.04***
Transportation	0.08	0.07*	0.10	0.08***	0.14	0.09***	0.15	0.09***
Education	0.07	0.02***	0.10	0.06***	0.11	0.08***	0.10	0.09***
Eat-out	0.08	0.09**	0.10	0.12***	0.09	0.12***	0.08	0.10***
Non-expenditure	0.16	0.12***	0.18	0.17	0.20	0.20	0.21	0.27

*p < .05, **p < .01, ***p < .001

Table 10. Selected Expenditure Categories of Four Income Groups in 2010

	Lowest		Low		Middle		High	
	N	P	N	P	N	P	N	P
Food/beverage	0.17	0.21***	0.11	0.14***	0.09	0.11***	0.06	0.09***
Clothing/shoes	0.04	0.03	0.05	0.05	0.05	0.05	0.04	0.05
Housing/water/electricity	0.16	0.19***	0.10	0.12***	0.07	0.09***	0.06	0.06
Health	0.10	0.08***	0.06	0.06*	0.05	0.05	0.04	0.05
Transportation	0.07	0.06	0.10	0.08***	0.13	0.08***	0.18	0.08***
Education	0.04	0.02***	0.10	0.05***	0.13	0.08***	0.12	0.10***
Eat-out	0.07	0.08**	0.09	0.11***	0.09	0.11***	0.07	0.10***
Non-expenditure	0.15	0.15	0.18	0.19	0.21	0.22	0.25	0.28

*p < .05, **p < .01, ***p < .001

Table 11. Logistic Regressions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Independent Variables[a)]	Lowest	Low	Middle	High
	B	*B*	*B*	*B*
Ordinary income*	-4.96***	-7.46***	-9.32***	-7.71***
Non ordinary income*	-0.05***	-0.06***	-0.07***	-0.07***
Food/beverage*	1.53***	1.56***	1.70***	0.65***
Liquor/tobacco*	-0.01	-0.03*	-0.02	-0.05**
Clothing/shoes*	-0.01	0.09***	0.37***	0.20**
Housing/water/electricity*	0.61***	1.21***	1.27***	1.17***
Housing service*	0.03	0.14***	0.29***	0.33***
Health*	0.13***	0.17***	0.19***	0.24***
Transportation*	0.18***	1.01***	1.74***	1.84***
Telecommunication*	0.15***	0.38***	0.66***	0.59***
Entertainment*	0.33***	0.64***	0.83***	0.78***
Education*	0.07***	0.10***	0.14***	0.12***
Eat-out*	0.09***	0.62***	1.15***	0.86***
Others*	0.60***	0.57***	0.44***	0.08
Non-expenditure*	0.19***	1.32***	2.48***	2.02***
Survey year				
2000	-1.14***	-0.82***	-0.67***	-0.41*
2005	-0.72***	-0.54***	-0.64***	-0.25
Marital status				
Single	-0.08	-0.09	-0.03	-0.02
Non-cohabitation couple	0.17	-0.17	0.46	0.70
Age				
30~44	-0.41	-0.17	0.49	0.29
45~64	-0.49	-0.02	0.63	0.41
65+	-1.09***	0.06	0.66	0.76
Gender				
Female	-0.27*	0.19	0.14	-0.37
Education attainment				
College	0.02	-0.12	0.04	0.06
Graduate school and above	-0.01	-0.21	0.22	0.13
Employment				
Unemployed	0.11	0.22	-0.02	-0.52
Temporary salary earner	0.42*	0.01	-0.29	-0.25
Day laborer	-0.29	0.20	-0.19	-0.26
Employer	0.17*	0.04	-0.05	-0.03
Self employed worker	0.02	0.18	0.10	0.25
Unpaid household laborer	-0.103	1.28*	-0.12	-11.98
Others	0.13	-0.02	-0.18	-0.05
A child/children				
Employed a child/children	-0.32***	-0.15	-0.56**	-0.19
A child/children in schools	0.37	0.44***	0.42**	0.36**
Other children	-0.03	0.02	-0.10	-0.03
Intercept	25.65***	***	-1.44	4.14

[a)] The following variables are treated as reference groups : Survey year: 2010; Marital status: Cohabitation couple; Age: less than 30; Gender: Male; Education attainment: Less than college; Employment: Salary earner; Child/children: No child.

*$p < .05$, **$p < .01$, ***$p < .001$

* values are log transferred.

관련된 지출의 비중은 낮았다. 반면 고소득계층의 적자가계의 경우 '교통', '교육', '비소비지출'과 관련된 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식료품', '주거' 관련 지출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다변량 분석 결과

가계의 지출이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가계의 적자 발생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자녀), 경제적 특성 변수(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주택보유), 가계의 항목별 소득액(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가계의 항목별 지출액(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해당 연도 등을 포함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1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의 지출이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가계의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적자가계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보건,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과 비소비지출은 적자가계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서 적가가계가 될 확률은 2010년도가 2000년도와 2005년보다 높았다. 준거연도를 201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계계층과 서민계층의 경우 가계의 지출이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확률이 2000년에서 2010년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계층의 경우 적자가계 확률이 2000년과 2005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2010년에는 증가하였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적자가계 확률이 2000년에 가장 낮았으며, 2005년과 2010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표에 제시되지 않음).

전술한 독립변수들 이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가계의 지출이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계계층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 성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취업 중인 자녀 여부가 적자가계의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 가계는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가계보다 적자가계가 될 확률이 낮았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보다 적자가계의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주가 임시근로자인 경우에는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가계보다 적자가계가 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취업상태에 있는 자녀가 존재할 경우 적자가계가 될 확률은 감소하였다.

서민계층의 경우 가구주가 무급가사노동에 종사하거나, 학업중인 자녀가 존재할 경우 적자가계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중산계층의 경우 취업한 자녀가 있을 경우 적자가계의 확률이 감소하였으며, 학업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적자가계의 확률이 증가하였다.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도 학업 중에 있는 자녀는 적자가계의 확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적자가계의 경제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적자가계의 경제적 특성 중 가계수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계층별로 분석이 이루어 졌다. 가계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소득의 부족인지 지출의 과다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러한 발생 원인이 소득계층별로 상이한지 분석하였다. 적자가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가계의 부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며, 적자가계의 원인과 재무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가계 재무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나 최근의 적자가계의 특성변화를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적자가계는 다양한 소득계층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소득계층별로 적자가계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2000년, 2005년,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가계수지를 이용하여 가계를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로 구분하였고, 각 가계들의 수지의 규모, 수지의 격차, 적자가계의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적자 가계의 특성과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하여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여성이 가구주인 가계,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계,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은 가계, 가구주가 비 취업상태인 가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인 경우, 학업 중인 자녀가 있는 가계의 경우 적자가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가계소득의 항목과 비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흑자가계의 가계수입이 적자가계의 가

계수입보다 높았으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가계수입의 격차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입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계수입의 대부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적자가계는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흑자가계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계층을 한계계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분류한 뒤 가계소득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흑자가계가 적자가계보다 경상소득, 비경상소득을 포함하여, 가계소득이 높았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소득 격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M. Park, S. Lee, and M. Bae(1996)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을 때에도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힌바와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가계지출의 항목과 비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가계지출은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J. Won(2003)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자가계가 거의 모든 소비항목에서 비적자가계보다 절대액 기준으로 소비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가계지출의 대부분은 소비지출이 차지하였는데, 특히 적자가계는 흑자가계보다 소비지출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소비지출 중 교통, 교육 분야에서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악화는 이러한 소비지출과 관련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적자가계의 원인을 크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소득부분에서 살펴보면 가계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모두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낮았다. 가계수입을 살펴보면 한계계층의 경우 2000년과 2010년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약 21만 가량이 가계수입 낮았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2000년과 2010년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약 66만원과 약 53만원 정도 가계수입이 낮았다. 반면 가계지출 부분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적자가계는 흑자가계보다 소비지출액이 높았다. 한계계층의 경우 2000년과 2010년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약 48만원과 약 51만원 가량 가계지출이 높았으며, 고소득계층의 경우 2000년과 2010년 적자가계가 흑자가계보다 약 207만원과 266만원 가량 가계지출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자가계가 되는 원인은 가계의 수입의 차이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가계의 지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타소득과 기타지출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적자가계의 경우 자산변동으로 인한 소득과 부채 증가를 통하여 증가한 소득이 흑자가계보다 높았다. 반면 부동산 대출 상환과 같은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의 경우에는 흑자가계가 적자가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계의 지출이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보건', '교통', '오락/문화', '교육', '기타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대부분의 소비지출 항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소비지출 또한 적자가계가 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도와 학업중인 자녀 여부이었다. 2010년의 경우 다른 두 해와 비교하여 적자가계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계계층과 서민계층의 경우 2000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인 자녀가 있는 가계의 경우 적자가계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종속변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도 존재하였다. 한계계층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그룹은 적자가계,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이거나 임시근로자인 경우 적자가계가 될 확률이 높았다. 취업상태에 있는 자녀가 존재할 경우 적자가계가 될 확률은 감소하였다. 중산계층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45세 이상 65세미만인 가계의 경우 적자가계의 확률이 증가하였다. 취업상태의 자녀가 있을 경우 적자가계의 확률이 감소하였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학업중에 있는 자녀는 적자가계의 확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자가계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계의 적자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가계동향조사의 28,447가계를 분석한 결과 적자가계의 원인은 가계의 소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지출의 과다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계는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차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계 수지 적자에 대처하려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적자가계의 경우 부채 차용의 증가로 가계로 들어오는 수입이 흑자가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출은 흑자가계보다 낮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가계수지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가계는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부채의 차입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적자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가 있다.

소득의 측면에서 제언하자면 특히 저소득층 적자가계의 경우 가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약탈적 대출을 이용하는 폐해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고착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들 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정부 지원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취업 능력의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출의 측면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재원의 확대하거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정책 등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소득상환능력을 충분하게 고려한 가계대출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지출 관리와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재무 교육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74.

Bank of Korea (2013). Analyses of financial trends of deficit households. Retrieved from http://dl.bok.or.kr/search/DetailView.ax?sid=15&cid=500344.

Bae, M., Hanna, S., & Lindamood, S. (1993). Pattern of overspending in U.S. household.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30.

Breen, R. (1996). *Regression models: Censored, sample-selected, or truncated data*.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Brewer, M., Goodman, A., & Leicester, A. (2006). *Household spending in Britain. What can it teach us about poverty?* Lond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Chang, Y. R. (1994). Saving behavior of U.S. households in the 1980s: Results from the 1983 and 1986 Survey of Consumer Financ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1-21.

Cho, I. (2005). *SAS lecture and statistic consulting*. Yongjin.com.

Choi, H. (1996). The determinants of incurring new household debt and effects of household debt on household spend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3), 59-73.

Choi, H. (2000). Several suggestions on the urban household survey by the bureau of statistics.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2*(1), 129-143.

Chosun Newspaper (2013, August 19). The middle class with a negative cash flow increased to up to 1,250,000. Retrived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9/2013081900201.html?newsstand_news1.

Davis, E., & Carr, R. (1992).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3-16.

Fan, X., Chang, Y., & Hanna, S. (1992). Optimal credit use with uncertain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25-133.

Greene, W. H. (2000). *Econometric analysis*(5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Hankyoreh Newspaper (2012, June 13). We do not need to worry about the foreign currency firewall? Daunting household debt.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7654.html.

Hanna, S. (1995). Optimal life cycle saving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6,* 1-15.

Heckman, J.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1.

Jayathirtha, C., & Fox, J. (1996). Home ownership and the decision to overspend.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7,* 97-106.

Jeon, S., & Im, B. (2008). Analysis on household asset and debt since 2000. *Public Finance Review, 1*(2), 133-162.

Jeong, S., & Hwang, S. (2013). *Analysis o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of deficit households*. Trend Report by Bank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l.bok.or.kr/search/DetailView.ax?sid=15&cid=500344

Jeong, Y. (2006). Empirical analyses on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Focusing on macro economic variabl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19*(6), 2483-2504.

Korean Financial Magazine (2012, January 18). Era of households with 1,000 billion debt.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0&aid=000002332

Kyounghang Newspaper (2013, August 12). Deficit and surplus households. :Car ownership and education were related with deficit and surplus house-

holds. Retrieved from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8122208335&code=920301&med=khan

Lee, S. (2005). Analyses on overspending and financial structure of households with debt: Focusing on the seriousness of overspending and household deb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6*(1), 73-95.

Lee, S., & Sung, Y. (2007).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spending of deficit households with deb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10), 45-57.

Magrabi, F. M., Chung, Y., Cha, S., & Yang, S. (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Meyer, B.D., & Sullivan, J. X. (2003): Measuring the well-being of the poor using income and consumption. *NBER Working Paper no. 9760*. Cambridg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Retrieved from http://www.mosf.go.kr/news/news01.jsp?actionType=view&runno=4090770

Moon, S., Kim, S., & Yang, J. (1996). The factors of household debt incurring and the amount of household deb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2), 157-169.

Park, D. (2009).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Consumer Monthly*. March.

Park, J. (2007). The consumption trend of the lowest income group in Korea and Japan. *Financial Brief, 16*(12), 8-9.

Park, M., Lee, S., & Bae, M. (1996). The determinants of urban employees' overspending and financial ratio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5), 209-222.

Seoul Finance (2013, August 12). Deficit households increased living expenditures to pay off the debt. Retrieved from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8/e2013081217442148010.htm

Seoul Finance (2014, July 4). Filing for a bankruptcy can allow people to get out of the unbearable debt and debt collection. Retrieved from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7/e2014070412023193760.htm

Sim, Y. (1993). The effects of household debt on the spending patter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2), 29-49.

Sung, Y. (2006).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by using a panel dat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4), 39-60.

Won, J. (2003). The financial condition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 and positive cash flow after the economic crisis. *Health Welfare Policy Forum*, November.

Yang, S. (2010). The characteristics of deficit household and the analysis of financial structures. *Th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14*(1), 135-159.

□ 접 수 일 : 2014년 07월 15일
□ 심 사 일 : 2014년 09월 09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07일